

“함께 걷고 줍고 나누며 생명 소중함 알려요”

생명나눔, 새로운 시작

8.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 현장

생명나눔실천본부는 9월 13일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이날 걷기명상에는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나경원 국회의원과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이 일면 스님과 만해광장을 떠나 남산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생명존중과 나눔 정신으로 건강한 세상을 염원하는 걷기대회가 서울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열렸다. 특히 걸으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도 함께 진행돼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시간으로 의미를 더했다.

불교계 유일 장기기증 희망등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스님)는 9월 13일 동국대와 남산 일대에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부처님 자비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매년 걷기대회를 개최해 온 생명나눔실천본부는 3년 전부터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도 함께 진행하며 생명나눔과 함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사회에 전하고 있다.

‘생명사랑 환경사랑’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서 이사장 일면 스님(조계종 원로의원)과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 4km를 걷기명상하며 힐링의 시간을 갖고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본격적인 걷기명상에 앞서 일면 스님은 “2008년부터 부처님 사상과 생명존중 정신을 바탕으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시작한 생명존중 걷기대회가 올해로 16회를 맞게 됐다”며 뜻깊은 행사에 동참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함께 걷는 이 시간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걷기명상을 넘어 서로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생명을 살리는 희망을 잇는 귀한 인연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축사를 통해 생명나눔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은 “생명존중은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가치”라며 “오늘의 걷기명상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고, 플러깅은 환경을 존중하는 작은 실천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이런 가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살 예방, 청소년 보호, 정신건강 지원과 같은 분야에서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우리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생명나눔실천본부, 9월 13일 남산서
‘제16회 생명존중 걷기명상&플로깅’
1000여 명 동참해 남산 산책로 걸어
일면 스님 “서로에게 따뜻한 시간”
“한 걸음 한 걸음 생명 살리는 희망”

김병주 의원(남양주시을)은 축사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거듭 강조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며 그것을 나누는 것은 아주 귀한 행동”이라면서 “걷기명상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고 자연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세상에 알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은 “최근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회가 각박해진 것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닐까 한다”며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길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겠다”고 말했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은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이들은 남산을 걸으며 생명나눔의 가치를 생각하고 중간 중간 발견한 쓰레기를 주우며 환경보호도 실천했다.

걷기명상&플로깅 후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산하 마하무용단(단장 정현숙)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만해광장에는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과 함께하는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가족 단위 참가자들은 타로, 양말목 키링,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등을 체험하며 화창한 주말을 즐겼다. 동국대일산병원에서는 응급부스를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했다.

한편 이날 걷기명상&플로깅에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이사 명신 스님(통도사 수좌), 불암사 주지 법정 스님, 묘적사 주지 법륜 스님, 불일문도회 스님들을 비롯해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해성 스님, 국회 정각회장 이헌승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나경원 국회의원,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마하무용단원, 연화원 회원, 대불련, 동국대 참사랑 봉사단, 남양주 광동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등 1000여 명의 불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일면 스님은 인사말에서 동참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동국대 만해광장을 출발해 남산 둘레길 4km를 걷기명상했다.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살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마련됐다.



마하무용단의 축하공연이 이날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1000여 명의 동참자들은 힘찬 구령과 함께 걷기명상을 시작했다.



공동모연 캠페인

생명나눔! 불자님의 자비 손길이
캄보디아 아이들의 희망이 됩니다



자유롭게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의 작은 소원!
지금 우리가 내미는 작은 손길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지원 물품 학용품, 신발, 의료물품 등
후원 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후원 문의 02)2004-8214 2차 현지 방문 2026년 1월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